



## 薛景成의 醫術

1. 緒論 .....	32
2. גיע .....	32
3. 벼슬 .....	33
4. 醫德 .....	33
5. 金元사대가 醫藥學 수용 .....	34
7. 맺음말 .....	36
참고 문헌 .....	37

# 薛景成의 醫術

韓國韓醫學研究所 醫史文獻研究室  
申舜植

과연 설경성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겠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1. 緒論

어떤 시대에 활약한 의약인물들의 평가를 통하여 드러난 의약학의 성과물은 그 시대 의약학사의 모습을 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薛景成(1237-1313)의 연구는 『高麗史』의 「薛景成傳」을 그대로 소개한 것,<sup>1)</sup> 위안(元)의 스즈2)(世祖, 재위기간: 1260-1294)와 충영종(成宗, 재위기간: 1295-1307)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려에서 설경성을 위안(元)에 파견한 것<sup>3)4)</sup>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설경성의 가계를 정리해보고 그가 역임했던 관직은 무엇이며, 또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며, 위안 나라 임금의 병치료를 통한 고려와 위안의 의학의교에서의 그의 역할은 어떠한지, 그리고 고려가 진위안(金元)四大家 의약학을 수용하는데

## 2. 가계

설경성은 1313년에<sup>5)</sup> 77세의 나이로 죽었으므로 그가 태어난 해는 죽은 해에서 역산하면 1237년이 된다. 따라서 그는 高宗24년인 1237년에 태어나 忠宣王5년인 1313년 2월에 77세의 나이로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설경성은 鷄林<sup>7)</sup>人으로서 慶州·淳昌薛氏이고 그始祖는 薛居伯이다. 그는 慶州·淳昌薛氏의 33世孫이고 弘儒侯 薛聰의 14世孫이다. 그의 아버지는 將作監을 지낸 薛公裕이고 할아버지는 景宗朝에 判中樞를 지낸 薛孝孫이다.<sup>8)</sup> 아들로는 薛文遇를 두었는데, 그는 成均館 大司成에 올랐다.

1) 金斗鍾 著, 『韓國醫學史』, 「第六章 醫書目錄 및 醫人傳」, 「第二節 醫人傳」, 서울: 探求堂, 1979: 183-184.  
2) 人名·地名等 固有名詞의 中國音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씨케이 시스템」(김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349-361.)에 의한 것이다.  
3) 위의 책(『韓國醫學史』, 「第三章 末期醫學」, 「第一節 元醫學과의 交流」), 143.  
4) 孫弘烈 著,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第四節 醫·藥의 交流와 醫書의 刊行」, 「1. 宋·元等 諸國과의 交流」, 서울: 修書院, 1988: 147.

5) 「癸丑 五年, …… 二月乙丑에 僉議贊成事로 致仕한 薛景成이 卒하였다. (癸丑 五年, …… 二月乙丑, 僉議贊成事致仕薛景成, 卒.)」(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 譯註·編輯, 『譯註高麗史』(第三) 「世家三」, 서울: 太學社, 1987: 143-289.)  
6) 「卒하매 나이 七十七이었다. (卒年七十七.)」(위의 책(『譯註高麗史』(第十) 「列傳三」, 「薛景成」), 85-177.)  
7) 鷄林: 慶尙北道 慶州市의 옛 이름이다. 원래는 始林이다. (田裕新 編, 『韓國古地名辭典』, 再版,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95: 21.)  
8) 慶州·淳昌薛氏大宗會·大同譜編纂委員會 編輯兼發行, 『慶州·淳昌薛氏大同譜』卷之一, 大田: 回想社, 1994: 4.

『高麗史』 「卷122」 「列傳卷第35」 「薛景成」에는 “대대로 醫術을 生業으로하고 그 技術이 精通하다 (世業醫, 精其術)”<sup>9)</sup>는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의사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쉽게도 이들의 의술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그의 아들 薛文遇도 醫術에 조예가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알수가 없다.

### 3. 벼슬

설경성이 벼슬을 했다는 기록은 8번 보인다. 48세(1284년)때는 尙藥侍醫의 직책으로 위엔이 良醫를 구하므로 위엔에 파견되었고<sup>10)</sup>; 58세때는 同知密直司事의 자격으로 위엔(元)에 吊喪을 갔으며<sup>11)</sup>; 61세때는 三司右使를 지냈고<sup>12)</sup>; 62세때는 密直副使를 지냈으며<sup>13)</sup>; 64세때는 同知密直司事의 자격으로 위엔에 가서 皇太后를 吊喪하였다.<sup>14)</sup> 73세때는 資政院副使 判大僕寺事를 지냈고<sup>15)</sup>; 77세 죽을때까지

尙議贊成事를 끝으로 致仕하였다.<sup>16)</sup>

또, 설경성이 언제 벼슬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尙藥醫佐에 補任되었다가 累遷하여 軍簿摠郎이 되었으며 갑자기 同知密直司事에 승진되었고 知都尙議司事에 轉職하였다가 致仕하였다.”<sup>17)</sup>는 기록에서 尙藥醫佐·軍簿摠郎·知都尙議司事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면 尙藥醫佐는 正9品이고, 尙藥侍醫는 從6品이므로 尙藥醫佐는 尙藥侍醫(48세)를 하기전인 48세이전에 가졌던 벼슬이었을 것이고; 軍簿摠郎은 尙藥醫佐이후인 48세이후에서부터 同知密直司事를 맡았던 58세사이에 맡았던 벼슬이었을 것이며; 知都尙議司事는 尙議贊成事를 맡기 전일 것이다.

### 4. 醫德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高麗史』 「卷122」 「列傳卷第35」 「薛景成」에 잘 나타나 있다.<sup>18)</sup>

그의 인격은 후세에 본받을 만하다.

설경성은 당시 명의였다. 인간적이었으며 병치료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忠烈王이 병에 걸릴 때마다 치료를 전담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충열왕의 신임은 물론이고 忠烈王妃인 安平公主에게도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위엔나라 스주(世

- 9) 위의 책(『譯註高麗史』(第十)「列傳三」,「薛景成」), 84·176.
- 10) “乙酉十一年, …… 三月, …… 戊子에 尙藥 侍醫 薛景成을 元에 보냈는 바 元이 良醫를 求함으로 보낸 것이다. (乙酉十一年, …… 三月, …… 戊子, 遣尙藥侍醫薛景成, 如元, 元求良醫, 故遣之.)”(앞의 책(『譯註高麗史』(第三)「世家三」), 55·110.)
- 11) “四月 庚戌에 同知密直司事 薛景成을 보내어 元에 가서 吊喪하게 하였다. (四月庚戌, 遣同知密直司事薛景成, 如元吊喪.)”(앞의 책(『譯註高麗史』(第六)「志二」), 124·244.)
- 12) “薛景成으로 三司右使를 삼았다. (薛景成, 爲三司右使.)”(앞의 책(『譯註高麗史』(第三)「世家三」), 87·170.)
- 13) “薛景成·金富允·金尙으로 모두 密直副使를 삼았다. (薛景成·金富允·金尙, 並爲密直副使.)”(앞의 책(『譯註高麗史』(第三)「世家三」), 91·178.)
- 14) “庚子二十六年, …… 夏4月 庚戌에 同知密直司事 薛景成을 元에 보내어 皇太后喪을 吊하였다. (庚子二十六年, …… 夏4月庚戌, 遣同知密直司事薛景成, 如元, 吊皇太后喪.)”(앞의 책(『譯註高麗史』(第三)「世家三」), 93·183.)
- 15) “薛景成으로 資政院副使 判大僕寺事를 삼았다. (薛景成, 爲資政院副使判大僕寺事.)”(앞의 책(『譯註高麗史』(第三)「世家三」), 126·127·252.)

- 16) “癸丑 五年, …… 二月乙丑에 尙議贊成事로 致仕한 薛景成이 卒하였다. (癸丑 五年, …… 二月乙丑, 尙議贊成事致仕薛景成, 卒.)”(앞의 책(『譯註高麗史』(第三)「世家三」), 143·289.)
- 17) “初補尙藥醫佐, 累遷軍簿摠郎, 驟遷同知密直司事, 轉知都尙議司事致仕.”(앞의 책(『譯註高麗史』(第十)「列傳三」), 84·85·176·177.)
- 18) 앞의 책(『譯註高麗史』(第十)「列傳三」,「薛景成」), 84·85·176·177.

祖)가 병에 걸려 고려에 의사를 구할 때에 충열왕비가 설경성을 추천하고 그가 위엔나라에 갈 때 여비와 옷을 보내 준 것을 보아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는 위엔나라 임금 스주(世祖)의 병에 약을 써서 효과를 보았다. 스주의 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그는 스주의 신임을 얻어 館舍와 米穀을 선물받았고 특명을 받아 수시로 왕실을 출입하는 특혜를 누렸으며 임금앞에서 바둑을 두고 임금이 몸소 와서 관람하는 등 의사로서 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임금과 가까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엔나라 츠영종(成宗)이 병이 났을 때에도 위엔나라는 설경성을 초빙하여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는 고려왕의 병치료에 그치지 않고 위엔나라 임금의 병을 치료하여 고려의 의술을 강대국 위엔나라에서 한껏 발휘하였다. 당시 위엔나라는 진위엔(金元)四大家<sup>19)</sup>醫學이 꽃을 핀 시기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를 위엔나라 임금의 병치료에 초빙하고 대우를 극진히 했던 것은 그가 인간적이었던 점과 의술이 뛰어났음을 함께 보여주는 파격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정적인 인물이었다. 스주의 병 치료차 2년동안 위엔나라에 머물렀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의 깊은 뜻이 아내와 가족 사랑에 있음을 안 스주는 그에게 가족을 데리고오라는 특별한 배려에 아내가 이를 반대하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여 고려에 머무는 그의 태도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여 고려와 위엔나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가로서의 역할도 보여 준다.

그는 키가 크고 풍채가 있고 용모가 단정했으며 부지런하고 인정이 많았다. 높은 벼슬을 하고 고려

왕과 위엔나라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았고 또 자손을 위하여 혜택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집안의 재산늘리는데도 힘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과 私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들인 薛文遇의 벼슬이 成均館大司成에 이른 것만 보아도 자식교육이 훌륭했음을 보여준다.

## 5. 금원사대가 醫藥學 수용

설경성이 과연 진위엔(金元)四大家의학을 고려에 가지고 왔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한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몇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진위엔사대가나 그의 제자들이 위엔나라 황실의 관리로 동용되어 황실의료를 담당했고 담당했다면 그들의 황실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담당을 하지 않았다면 황실의료를 담당한 다른 의사들이 당시에 성행한 민간 의 진위엔사대가의학을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둘째는, 살은 시대로 보면 설경성은 진위엔사대가와 직접 학문적인 교류는 불가능했으므로 진위엔사대가의 학문을 이은 의사들이나 의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었는지 다루어져야 한다.

위의 두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되면 설경성을 통하여 진위엔사대가의학이 고려에 어느 정도 수용되었고 또 고려의 醫學이 위엔나라에 영향을 끼쳤는지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리우따오청(劉道清)은 『金史』의 「表」에 진(金)은 전여우(貞祐)3년(1215년)에 베이징(汴京)<sup>20)</sup>으로 천도하였고 장충정(張從正)의 고향은 카오츠영(考城)

19) 진위엔(金元)四大家는 리우완수(劉完素, 1110-1200)·장충정(張從正, 1156-1228)·리카오(李杲, 1180-1251)·주전형(朱震亨, 1281-1358)을 말한다.

20) 베이징(汴京) : 카이펑(開封)의 옛 이름으로 베이송(北宋)의 서울이었다.

인데 서울과 가깝다는 것에 근거하여 장충정이 太醫로 초빙된 시기를 1215년으로 보고 있다.<sup>21)</sup> 나머지 진위앤사대가는 『金史』나 『元史』에 황실의 관리로 등용되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진위앤사대가의 제자들이 관리로 등용되었는지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또한 진위앤사대가의학을 당시 황실의료를 담당한 관리들이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밝혀지 못했지만 장충정(1156-1228)이 태의를 지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의학이 황실의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충정의 의학은 다름아니라 리우완쑤(劉完素, 1110-1200)의 의학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황실의료는 마땅히 리우완쑤 의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金史』卷131 「列傳」第69 「方技」에 보면, 리우완쑤가 아플때 장위앤쑤(張元素)가 와서 고쳐주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sup>22)</sup> 보아 리우완쑤는 장위앤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장위앤쑤의 제자인 리까오(李杲, 1180-1251)의 의학도 황실의료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전형(朱震亨, 1281-1358)은 설경성보다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史料나 설경성의 저서가 없어서 분명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앤나라 황실의료는 당시 가장 발전된 진위앤사대가의학자들이 맡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양의학에서 위앤나라가 이론이나 임상에서 선진의 진위앤사대가의학이라는 의학발전의 꽃을 피워 많은 훌륭한 의학자들이 있었다할지라도 위앤나라 스주(世祖)나 츠영종(成宗)이 병이 났을 때 위앤나라의 훌륭한 의사들을 마다하고 고려의 설경성을 초빙하여 효과를 보았다는 史實은 고려의술이 중국

의학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성과있는 醫學의 꽃을 나름대로 피우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1) 劉道清, 「張子和被召補爲太醫的時間商討」, 『中華醫史雜誌』 1984: 第14卷 第3期: 182.

22) (元) 脫脫 等撰, 『金史』(八) 卷131 「列傳」第69 「方技」, 第1版 第4次印刷,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2: 2812-2813.

## 7. 맺음말

설경성(薛景成, 1237-1313)은 鷄林人이고 薛居伯을 始祖로하는 慶州·淳昌薛氏의 33世孫이고 薛聰의 14世孫이다. 그의 아버지는 將作監을 지낸 薛公裕이고 할아버지는 景宗朝에 判中樞를 지낸 薛孝孫이다. 아들 薛文遇는 成均館大司成에 올랐다. 그는 世醫집안이라 아버지·할아버지·아들도 의술이 남달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설경성은 尙藥醫佐·尙藥侍醫·軍簿摠郎·三司右使·同知密直司事·密直副使·知都僉議司事·資政院副使·判大僕寺事·僉議贊成事 등의 관직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왕실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이외에도 고려와 위엔(元)의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외교가로서의 역할도 특특히 하였다.

그의 인격은 후세에 본받을 만하다. 그는 인간적이었으며 왕실의 병치료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고려와 위엔나라 왕실의료를 담당한 당시 최고의 의사였다. 또, 그는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여 고려와 위엔나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가로서의 역할도 보여준다. 그는 키가 크고 풍채가 있고 용모가 단정했으며 부지런하고 인정이 많았다. 높은 벼슬과 고려와 위엔나라 임금의 두터운 신임속에서도 자만하지 않았고 또 자손을 위하여 혜택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집안의 재산늘리는데도 힘쓰지 않은 그야말로 공과 私를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거기다가 자식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史料가 부족하고 설경성의 저서가 전하지 않아 분명히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설경성은 진위엔사대가의학을 왕실의료외교를 통하여 고려에 들여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엔나라는 선진의 발전된 진위엔사대가의학의 꽃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위엔나라 스쥬(世祖, 재위기간: 1260-1294)나 츠영종(成宗, 재위기간: 1295-1307)이 병이 났을 때 위엔나라 의사를 마다하고 고려의 설경성을 초빙하여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은 고려의술이 중국의학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성과있는 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1. 金斗鍾 著.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9.
2. 金응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3. 孫弘烈 著.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8.
4. 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 譯註·編輯. 『譯註高麗史』(第三·第六·第十). 서울: 太學社, 1987.
5. 田溶新 編. 『韓國古地名辭典』. 再版.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 1995.
6. 慶州·淳昌薛氏大宗會·大同譜編纂委員會 編輯兼發行. 『慶州·淳昌薛氏大同譜』卷之一. 大田: 回想社, 1994.
7. 劉道清. 「張子和被召補爲太醫의 時間商討」. 『中華醫史雜誌』1984: 第14卷 第3期.
8. [元] 脫脫 等撰. 『金史』(八). 第1版 第4次印刷.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2.

## 색인어

薛景成·진위안(金元)·四大家·高麗·위안(元)

KYOBO  
교보문고